

# 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

-高麗 建國期 淸州豪族의 정치적 성격-

申 虎 澈\*\*

- 
- I. 머리말
  - II. 弓裔와 淸州
    - 1. '淸州人戶 一千'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
    - 2. 궁예의 출신지 - 청주
  - III. 王建과 淸州
    - 1. 建國 前後 청주호족의 向背
    - 2. 淸州豪族과 開國功臣의 대립
  - IV. 맺음말
- 

## I. 머리말

고려 건국기에는 특정지역의 호족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松嶽을 비롯한 溟江鎭 일대와, 羅州를 중심으로 한 남해 일대의 호족세력들이 고려의 건국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淸州와 熊州·運州 등 중부지방 호족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고려 건국에 심한 반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신라말 청주호족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필자 역시 청주호족과 후삼국 국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소론을 준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 하

\* 이 논문은 1998년도 중원문화연구소의 연구과제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교수

1) 申虎澈, 1993a.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 『호서문화연구』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청주호족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는 이 글의 73~75가 참고된다.

나는 지난번에 필자가 발표한 <후삼국 건국세력과 청주 지방세력>은 청주 호족과 후삼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고려 건국과정에서의 청주인의 역할과 그 정치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궁예와 청주와의 관계라든가, 고려 건국 직후의 청주 호족들에 의해 주도된 반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좀더 보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던 터에, 마침 충북대학교의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기회를 갖게 되었다.<sup>2)</sup>

결국 이 연구는 <후삼국 건국세력과 청주 지방세력>에 대한 補論的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룰 문제는 우선 청주호족이 궁예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궁예가 청주호족을 왜 그토록 중시하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궁예가 철원 도읍시에 이주시킨 '淸州人戶 一千'에 대한 기존 해석의 비판적 검토에서 비롯될 것이다. 아울러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청주 호족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고려 건국 전후에 일어난 청주 호족의 정치적 모반사건의 탐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II. 弓裔와 淸州

### 1. '淸州人戶 一千'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궁예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기 1년 전인 904년에 '淸州人戶 一千'을 철원성에 옮겨 도읍을 설비케 하였다. 이때 옮겨간 '청주인호 일천'이 궁예 병력의 핵심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sup>3)</sup> 그러나 궁예가 왜 하필 청주인들을 철원으로 옮겨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리·역사적 배경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궁예가 청주인

2) 중원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청주·청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지난 1999년 2월 25일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때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이러한 견해는 이미 이기백(1956)을 시작으로 하여, 하현강(1969), 김광수(1972), 김두진(1979), 신호철(1982), 홍승기(1983), 박경자(1986), 김주성(1988), 조인성(1990), 안영근(1992), 정선용(1997) 등이 주장하였다. 다만 김갑동(1985)만이 후술할 바와 같이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1)의 논문(73-75)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선택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우선 궁예가 '청주인호 일천'을 철원으로 옮겨 자신의 세력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한 종래의 견해를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하자.

첫째, 河炫綱은 청주의 人戶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戶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주인을 옮겨 자신의 세력기반을 삼지는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당시 청주의 인호와 비슷한 지역은 청주 이외에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前首都였던 송악의 인호를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당시 궁예의 세력권 안에 있던 忠州나 溟州, 原州, 尙州 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둘째, 小京으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金光洙의 견해<sup>5)</sup> 역시 같은 논리로 수긍하기 곤란하다. 즉 그러한 이유라면 철원에서 가까운 中原京(충주)이나 北原京(원주)이 西原京(청주) 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鄭善溶은 신라를 병합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주가 신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고, 나아가 반신라적인 성향을 가진 청주인을 신라 병합을 위한 전진 기지로 이용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 역시 앞의 두 견해와 같이 일반적인 설명 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가 말한 것처럼 청주가 김헌창의 난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주인이 반신라적 성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의 추론도 수긍하기 어렵지만,<sup>7)</sup>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궁예가 청주인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 즉 청주가 반신라적 성향이 있었다거나 신라 진출의 중요한 통로였다는 사실과 궁예 병력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 사이에 이를 연결해 줄만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설혹 그렇다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라면 충주나 상주가 더욱 유리했을 것이다.

결국 청주인을 수도 철원으로 옮겨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은 이유를 인구가 많다는 것, 문화수준이 높다든가, 신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써 반신라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일반론적인 설명보다는 오히려 청주인과 궁예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를 이해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

넷째,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이가 金甲童이다. 그는 위의 세 견해와

4) 河炫綱, 1969. 「高麗太祖와 開城」 『李弘植回甲紀念論叢』, 138.

5) 金光洙, 1972. 「羅末麗初 지방학교 문제」 『한국사연구』7, 121.

6) 鄭善溶, 1997. 「궁예의 세력형성 과정과 都邑選定」 『한국사연구』97.

7) 왜냐하면 김헌창의 난에 가담한 것은 청주 뿐 아니라 光州, 全州, 晉州, 尙州, 및 忠州나 金海 지역 등 광범하게 가담하였다. 그렇다면 이 지역 모두가 반신라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는 달리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당시가 후삼국 쟁패기였을 뿐 아니라 청주의 역사 지리적 배경으로 보아 어떤 정치적 술책이 아니었나’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시각은 앞의 견해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김갑동이 말한 ‘정치적 술책’에 대한 구체적인 立論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즉 그가 “형벌로서의 성격도 일면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주를 완전히 지배하여 후백제에 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단 인질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한 것<sup>8)</sup>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위와 같은 추론에 대한 근거로 다음 두 가지의 예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昧谷人 景琮의 반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청주출신 軍人 80명의 처형사건을 들었다.

우선 경종의 반란사건부터 보기로 하자. 경종은 매곡(지금의 충북 보은군 회북면) 사람으로 왕건의 즉위 3개월 후인 918년 9월에 徇軍吏 林春吉과 함께 모반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그런데 경종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누이의 어린 자식(幼子)이 京城에 있어 그 離散됨을 생각하면 마음 상함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時事가 어지러움을 보니 만날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마땅히 틈을 엿보아 도망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김갑동은 경종이 말한 ‘누이의 어린 자식’이 京城에 있다고 한 것에 주목하여 이는 바로 궁예가 집단적 인질로써 철원에 徙民시킨 ‘청주인호 1천’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갑동의 이러한 해석에는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경종의 ‘누이의 어린 자식’과 ‘청주인호 일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경종의 누이는 바로 昧谷城主 龔直의 처로 그의 어린 자식은 곧 공직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은 900년 이후에 견훤에게 귀부하여 그 심복이 되었으며, 그의 長子 直達과 次子 金舒와 一女를 후백제에 인질로 보냈었다. 그 후 공직은 932년 6월에 견훤을 버리고 왕건에 귀부하여 다시 아들 英舒를 고려에 인질로 보냈던 것이다.<sup>9)</sup> 따라서 경종이 난을 일으킨 918년에 ‘경종의 누이의 어린 자식’, 즉 공직의 자식이 인질로 가 있던 곳은 고려가 아닌 후백제였다. 더구나 ‘청주인호 일천’의 철원 이주는 공직의 아들이 철원에 보내지기 30년이나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둘째, 경종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누이의 자식이 인질로 잡혀있는데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라는 김갑동의 추론에도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백제에 귀부한 자신의 妹夫 공직의 문제로 불안해하던 차에, 마침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이 즉위하는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향리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이 경종이 반란에 참가한 이유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8) 金甲童, 1985. 「고려건국기의 청주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48, 38.

9) 龔直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독립된 傳이 실려있다. 아울러 신호철, 1992. 「신라말 고려초 매곡성 장군 공직」, 『호서문화연구』10가 참고된다.

세번째로 공직의 아들은 昧谷人이기 때문에 ‘淸州人戶 一千’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 김갑동은 매곡현이 청주의 屬縣이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청주의 지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수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곡현이 청주의 속현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있는 이후의 일일뿐만 아니라,<sup>10)</sup> 당시 매곡이 청주와는 정치적 상황이 정반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청주의 지역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매곡의 호족인 공직이 견훤의 심복으로 있었으므로 매곡현은 후백제의 영역이었으나, 청주는 궁예의 세력기반이었다. 따라서 청주와 매곡은 각각 적대국의 최전방 전초기지로 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지역범위로 볼 수가 없다.<sup>11)</sup>

다음 김갑동이 또 다른 예로 제시한 尹全과 愛堅 등 청주출신 군인 80명에 대한 궁예의 처벌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이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인질로 철원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후백제에 붙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상술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성격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들이 궁예에게 처벌된 이유는 후백제에 붙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궁예와 왕건 간의 대립으로 궁예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궁예가 ‘청주인호 일천’을 철원에 옮긴 이유에 대한 기존의 네가지 견해, 즉 ①청주의 人戶가 많았기 때문이라든가(하현강), ②小京으로서의 문화적 수준을 이식시키기 위해서라든가(김광수), ③신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든가(정선용) ④후백제에 붙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강제 徙民(김갑동)이라는 기존의 해석은 모두 일반론적이거나(하현강, 김광수, 정선용의 경우), 사료 해석상 문제가 있음(김갑동의 경우)을 알 수가 있다.

## 2. 궁예의 출신지 - 청주

그러면 왜일까? 결국 그 이유는 청주가 궁예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청주인호 일천’을 자신의 핵심세력으로 삼은 것은 궁예가 청주인들을 신임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들을 신임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10) 언제 매곡현이 청주의 속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매곡의 성주 장군인 공직이 고려에 귀부한 932년 이후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11) 더구나 청주와 매곡의 사이에는 피발령이라는 커다란 재가 있어 지리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다. 지금도 청주 보은간 교통로는 米院-倉里를 우회하는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매곡으로 新路가 나가는 했지만, 미원을 통한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구태여 매곡을 청주의 지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932년 공직이 고려에 귀부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이다. 매곡과 인접한 보은, 문의 등지가 고려의 영역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곳의 호족인 공직이 귀부한 932년 이후의 일이 틀림없다.

것이 분명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주는 궁예의 출신 기반으로 일찍부터 궁예와 청주인과는 특별한 緣故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염두에 두고 여러 자료들을 탐색하다보면 그러한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궁예의 출생과 성장과정이 우리의 흥미를 끈다.

가. (궁예가) 5월 5일에 ①外家에서 출생하였다. 그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日官이 아뢰거늘 “이 아이가 重五일에 났으며 나면 서부터 이가 있습니다. 또 光焰이 이상하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 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中使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使者가 襦褌에서 빼앗아 樓 아래로 던졌었는데, 乳婢가 몰래 받다가 잘못하여 손으로 찢러 한 눈이 멀게 되었다. ②안고 도망해서는 숨어서 고생스럽게 길렀다. 나이 10여세가 되매 遊戲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 婢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서 나라의 버림을 받은 것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여 남모르게 길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대의 미친 행동이 이러하니 반드시 남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나와 그대는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였다. ③궁예가 울며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내가 (멀리)가서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소” 하고 그만 世達寺로 가니 지금의 興敎寺가 그곳이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善宗이라고 自號하였다(『삼국사기』 궁예전).

위 사료는 궁예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궁예는 성장하여 승려가 되기까지 세번을 옮겨 다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가 출생한 곳은 그의 外家였다(사료 가-①).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자 乳婢에 의해 九死一生으로 살아나 몰래 도망해 숨어살았음을 알 수 있다(사료 가-②). 그 후 그는 10여 세에 이르러 신분이 노출되기에 이르렀고, 다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 동안 숨어살던 곳에서 떠나 세달사로 가서 중이 되었다(사료 가-③). 그런데 세달사는 지금의 강원도 영월이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궁예의 출신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전혀 없다. 우선 그의 外家は 어디일까. 필자는 궁예가 景文王과 憲安王 次女와의 소생일 것이라고 추론한 바가 있지만,<sup>13)</sup> 만일 궁예의 母

12) 신호철, 1982. 「궁예의 정치적 성격」, 『한국학보』29, 37~38.

13) 필자는 궁예가 48대 景文王의 庶子로 그의 母는 憲安王의 次女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론한 바 있다. 왜냐하면 경문왕은 47대 현안왕의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 妃로 현안왕의 長女와 次女를 맞이했는데 長女와의 소생으로는 현강왕, 정광왕, 진성왕이 있으나 차녀와의 소생은 기록에 없기 때문이었다(신호철, 1982. 앞 글, 33~36).

系가 왕족이 아닌 일반 궁녀일 경우 그의 外家は 王京이 아닌 지방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그가 처음 숨어살았던 곳이 바로 그의 外家와 관련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다.

그러면 궁예가 乳婢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몰래 숨어살았던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 아마도 王京인 경주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닐까 한다. 우선 생각나는 곳이 그가 처음 출가하여 승려가 된 세달사 즉 강원도 영월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 궁예가 10여 세가 되어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다시 몸을 숨긴 곳이 세달사였음을 미루어 보면,<sup>14)</sup> 그가 처음 은신한 곳이 세달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결국 궁예가 10여 세까지 숨어살았던 곳은 우선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며, 그렇다고 그가 승려생활을 시작한 영월과도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어디일까. 궁예가 그 후 ‘自立’하기까지의 그의 활동 반경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나. 정치는 문란하고 백성은 흩어져서 서울 밖의 州縣은 叛附가 반반이었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나고 개미떼처럼 모이듯 하였다. 이를 본 善宗(=궁예)은 어지러운 틈을 타서 무리를 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①진성여왕 5년 대순 2년(891)에 竹州賊魁 箕萱에게 귀의하였다. 기훤은 그를 업신여겨 예로써 대우해 주지 않자, 선종은 수심에 쌓여 마음이 편치 않으므로 ②몰래 기훤의 부하인 元會와 申煊 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다. ③景福元年 壬子(892)에 北原賊 梁吉에게 가서 의탁하였다. 양길은 그를 잘 대우하여 중요한 일을 맡기고, 드디어 군사를 나누어 주어 동쪽으로 가서 공략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궁예전).

궁예가 영월의 세달사를 떠나 처음 찾아 간 곳은 竹州의 箕萱이었다(사료 나-①). 궁예가 기훤에게 귀부한 이유는 무리를 모으기 위한 것이고, 그가 찾아 간 곳은 竹州로, 지금의 안성과 음성일대로 청주와 북쪽으로 인접한 곳이었다. 즉 궁예가 정치적 야

14) 물론 궁예가 세달사로 가서 승려가 된 동기에 대해 필자와는 달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궁예가 세달사에 간 목적도 승려가 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투탁현상으로 보인다”고도 하였고(李在範, 1988. 「궁예정권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고찰」 『민병하기념사학논총』, 134~135), 또 “궁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출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의 출가 동기를 불교사상과 관련하여 “의상의 화엄사상에 자연스럽게 끌렸으리라고 짐작된다”고도 하였다(趙仁成, 1991. 「태봉의 궁예정권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5).

그러나 필자는 위의 <궁예전>의 기록대로 신분의 노출을 우려하여 승려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경제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부차적인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가 출가할 때의 나이가 10여 세의 어린 나이였음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종교적인 목적 특히 의상의 화엄사상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을 것이라는 추론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다.

망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청주와 인접한 곳이다. 더구나 기훤이라는 인물이 청주출신이라는 견해가 있고 보면,<sup>15)</sup> 궁예가 기훤에게 귀부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궁예가 기훤의 휘하로 있으면서 청주의 호족출신으로 여겨지는 申萱<sup>16)</sup> 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사료 나-②), 더욱 그 심증을 굳히게 된다. 즉 궁예가 처음 찾아가 관련을 맺은 사람인 '竹州賊魁 箕萱'이나 '淸州賊帥 莘萱(申萱)' 등이 모두 청주출신의 호족이거나 적어도 청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이었다.

그후 궁예는 신훤 등과 함께 다음 해인 892년에는 기훤을 떠나 北原賊 梁吉에게 귀부하였다(사료 나-③). 양길에게 귀부했다고는 하지만, 궁예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독립된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즉 궁예는 주로 청주를 중심으로 하여 괴양, 죽주 등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한 반면, 양길은 충주를 기점으로 그 서북쪽 원주 등지에서 활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궁예가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가 일찍부터 청주와 인연을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주의 호족세력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궁예가 일찍부터 청주와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조선 영조 20년(1744) 僧將 靈休가 상당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기록한 『上

- 15) 安永根, 1992. 「羅末麗初 淸州勢力의 동향」 『朴永錫華甲紀念論叢』, 402의 주17) 참조.  
 필자는 안영근의 이러한 추론이 매우 중요한 견해로써 이를 좀더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라말 고려초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漢式 姓氏를 자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기훤 역시 箕子의 후손임을 내세워 箕氏를 자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淸州의 土姓인 韓氏 역시 기자의 후손임을 자칭한 것을 보면, 기훤이 청주의 토착세력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층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고려 초기 청주에 건립된 <龍頭寺 鐵幢竿>의 銘文을 보면, 청주 토성인 金, 韓, 慶, 孫씨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건립하였고, 이는 곧 고려 건국기의 청주가 이들 토성집단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때 더욱 그렇게 생각된다(신호철, 1993b. 「후삼국기의 호족연합정치」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일조각)).
- 16) 그가 결탁했다고 한 元會와 申萱 중에 元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申萱은 『三國史記』 권12(신라 효공왕 4년 10월조)에 보이는 莘萱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즉 “國原·靑州·槐壤 賊帥 淸吉·莘萱”이라는 기록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淸吉은 國原의 賊帥, 莘萱은 淸州(槐壤)의 賊帥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적어도 청길과 신훤은 충청 북부일대의 강력한 지방세력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 17) 기록에는 궁예가 양길에게 ‘投’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라말 고려초에 흔히 나타나는 ‘歸附’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당시 호족간의 이루어지던 ‘귀부’는 개인과 개인간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을 지배하던 호족세력들간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즉 호족 개인의 이름만 기록된 것도 사실은 일정지역의 호족세력이 귀부한 것이며, 호족세력간의 연합을 의미한다(신호철, 1995. 「신라말 고려초 歸附豪族의 정치적 성격」 『충북사학』8, 12~21).

黨山城古今事蹟記』이다.<sup>18)</sup> 이중 築城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다. 在昔弓裔 新羅安憲王(憲安王之 誤記-필자주)之庶子也…중략…及長祝髮爲僧  
 ①往見梁吉 吉分兵東略地 因築城于此都居之 衆漸多 ②後甄萱奪據…중략…率將士數  
 千人 日夜兼行二百里 夜踰城拔之 西門外鵲江邊築土城作倉庫 受賦稅積置運入城中…  
 하략(『上黨山城古今事蹟記』).

이에 의하면 궁예가 양길의 부하로 있으면서 청주를 경략하고 이곳에 상당산성을 축성하고 도읍을 삼아 무리가 점차 많아졌으나(사료 다-①), 후에 견훤이 다시 이 성을 탈취했다고 되어 있다(사료 다-②). 이 사료가 비록 후대의 것이고 그 내용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주목을 끈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궁예가 청주를 처음 장악한 것은 900년의 일로, 이때는 이미 궁예가 양길을 제거하고 난 후이며, 그것도 왕건으로 하여금 청주를 공략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sup>19)</sup> 위의 『사적기』에 의하면 궁예가 양길의 부하로 있을 때 이미 청주에서 활동하였으며, 더구나 이곳을 거점(도읍)으로 삼아 무리를 크게 모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900년에 왕건으로 하여금 청주를 정복케 하였다면 궁예가 청주인들을 철원에 옮겨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무리가 많이 따른다. 오히려 892년~894년 사이,<sup>20)</sup> 즉 궁예가 양길의 부하로 있으면서 ‘東略’하던 시기에 이미 청주에서 활약하였고 이곳을 자신의 세력 근거지로 삼아 무리를 크게 모았다고 한 위의 『사적기』 기사가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궁예가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대하게 되자 점차 양길과 대립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궁예는 894년 무리 3천5백을 이끌고 명주에 들어가 자칭 장군이라 하였고, 895년에는 猪足, 철원 등 10여개 군현을 점령하였으며, 896년에 처음으로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후 898년 송악으로 천도하

18) 이에 대해서는, 신호철, 1993a. 앞 글, 80의 주31) 참조.

19)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가 청주를 장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료에 따라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즉 「궁예전」에는 왕건으로 하여금 청주를 정복케 했다고 되어 있지만(「궁예전」 光化 3년조), 한편 「신라본기」에는 청주지방의 호족이 스스로 투항했다고 되어 있다(「신라본기」 효공왕 4년조).

20) 궁예는 892년에 양길에게 귀부하였고, 894년에는 溟州(강릉)로 들어가 자칭 장군이라 칭하였다. 따라서 궁예가 청주를 거점으로 삼아 무리를 크게 활동한 시기는 892년에서 894년 사이로 생각한다.

였고, 904년에 '청주인호 일천'을 철원에 옮겨 수도를 설비케 한 다음, 그 이듬해인 905년에 드디어 철원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궁예가 891년 기훤에게 귀부하여 905년 철원에 도읍을 정하기까지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다시한번 그의 활동경로를 정리해 보면, 그는 세달사의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청주와 인접한 죽주로 내려와 청주출신 호족인 기훤의 부하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역시 청주출신인 신훤 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다. 궁예는 다시 원주의 양길에게 귀부하였다. 양길에게 귀부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궁예는 청주를 비롯하여 죽주, 괴양 등지를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양길은 충주, 원주 등지를 지배하였다. 궁예는 점차 세력을 키워 더욱 북쪽으로 나아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으나 아직은 양길과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마침 송악의 왕건 부자의 귀부를 기회로 송악에 천도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송악을 비롯한 패서지방의 호족들에게 견제를 받자 다시 철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자신의 측근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출신 기반인 청주인들을 철원으로 옮겨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청주지역을 '궁예세력의 온상과 같은 곳'이라고 한 지적은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탁견이라고 하겠다.<sup>21)</sup>

그러면 궁예는 왜 자신의 출신기반이자 세력의 온상과 같은 청주를 직접 도읍지로 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시의 군사적인 면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청주지역은 적국의 경계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청주와 바로 남쪽으로 인접한 味谷(보은군 회북면)을 비롯하여 熊州·運州 등지는 후백제의 세력권 안에 놓여 있었다. 궁예가 송악으로부터 천도하기 전 전국의 산수를 둘러보는 등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것은,<sup>22)</sup> 이러한 군사적인 면을 고려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옛 고구려를 부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구려 舊民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중부지역 보다는 경기·강원·황해일대의 북부지역을 세력근거지로 삼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또 신라와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다. 비록 신라가 쇠망하는 왕조라 할지라도 아직 천년왕조로서의 명분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후일 왕건이 신라와 인접한 지역의 호족이 귀부해 오자 이를 돌려보낸 것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백제와 인접해 있고, 신라를 자극할 수 있는 청주를 도읍지로 선택하기보다는 철원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21) 金杜珍, 1979. 「고려 광종대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15.

22) 궁예는 903년 도읍을 옮기고자 철원, 斧壤 등지를 돌며 산수를 둘러본 후, 이듬해인 904년에 청주인호 일천을 철원성에 옮겨 수도를 정비케 하였고, 다시 그 이듬해 905년에야 비로소 '新京'에 들어갔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의 철원 도읍지는 송악으로 옮기기 전 896년의 철원 도읍지와는 다른 곳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還都'라기 보다는 도읍지를 새로 정했다는 것이 옳다. '新京'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선용이 이 때의 철원 도읍을 단순히 '鐵圓還都'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으로 여겨진다.

### Ⅲ. 王建과 淸州

#### 1. 建國 前後 淸州호족의 向背

궁예가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긴데 대해 가장 불만을 가진 사람은 왕건이었다. 후일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왕위에 즉위하고 난 후,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사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23)</sup> 왕건의 불만은 궁예가 자신을 비롯한 이곳 일대의 호족세력을 정권의 핵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철원으로 천도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천도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청주세력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고, 결국 그는 궁예세력의 핵심을 이루게 된 청주인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912년(乾化 3년)에 있었던 '阿志泰 사건'이었다. 아지태 사건이란 청주인 아지태가 같은 청주 사람인 笠全, 辛方, 寬舒 등을 포함하였는데, 이들간의 분쟁을 有司에서도 수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왕건이 적극 개입하여 아지태를 처벌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아지태 사건은 궁예와 왕건, 그리고 청주 세력간의 관계 및 그들간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궁예정권 말기 왕건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파악한 바 있다.<sup>24)</sup> 즉 왕건이 아지태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궁예의 측근세력이던 청주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왕건이 의도한 바는 청주인들간의 분쟁에서 특히 친궁예세력이었던 아지태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대립하고 있던 입전, 신방, 관서 등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청주세력을 분열·견제시키려는 왕건의 의도는 이후에도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며,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이 같은 해석과는 다른 견해도 있다. 즉 아지태나 입전, 신방, 관서 등 분쟁을 일으킨 양측 모두가 궁예의 핵심측근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sup>25)</sup>

23) 『고려사절요』 태조 1년 8월. “왕이 참서를 믿고 송악을 버리고 부양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궁실을 지으니 백성이 토목공사에 피곤하고 삼시의 농사시기를 놓쳤다”고 하여 천도사실을 비난하였다.

24) 아지태 사건을 처음으로 주목한 이는 필자이다. 신호철, 1982. 앞 글, 46~48 ; 1993a. 앞 글, 81~8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두 파가 모두 궁예의 핵심 측근이었다면 서로 모함하고 대립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궁예의 핵심측근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건 후의 궁예정부의 권력내부에서 일어난 반응 때문이다.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왕건이 아지태를 제거하자,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속시원하게 여겼다. 轅門將校 宗室勳賢 智計儒雅의 무리가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처럼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조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閨外에 뜻을 두었다”고 한 것이다.

만일 아지태나 입전 등 양쪽이 모두 궁예의 핵심측근이었다면, 왕건이 자신의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sup>25)</sup> 특히 이 사건을 해결한 후 轅門將校 宗室勳賢 智計儒雅의 무리들이 바람같이 왕건에게 쏠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모두 궁예의 핵심 측근이었다면 사건을 해결한 왕건이 규외로 도망할 리도 없었을 것이며 궁예의 미움을 살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 아지태 사건 다음 해인 913년에 왕건은 侍中직에서 해임되고 閨外人 羅州로 내려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 사건은 왕건이 궁예의 측근이 된 청주세력들을 견제·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지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궁예 왕과 왕건의 태도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즉 궁예는 이 사건 후에 왕건 및 그를 따르는 친왕건세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 친왕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리게 되었다. 궁예는 소위 ‘彌勒觀心法’을 내세워 이들을 숙청하였으며, 그 결과 ‘將相 중에 十中八九’는 해를 당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숙청 당하였는가. 우선 부인 康氏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sup>27)</sup> 그런데 이들이 숙청된 시기가 중요하다. 즉 915년으로 아지태 사건이 있는 지 3년 후

25) 洪承基는 “입전 등도 궁예왕의 핵심적인 측근 정치인들로서 아지태에 손색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들의 차이는 궁예왕의 정책에 대해 아지태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강경파’라고 한다면, 입전 등은 ‘온건파’라고 추론하였다(洪承基, 1992. 「궁예왕의 전제적 왕권의 추구」 『許善道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81).

26) 洪승기는 왕건이 “정치에 있어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하여 이를 해결한 왕건보다는 아지태나 입전 등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洪승기, 위 글, 80). 그렇다면 왕건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오히려 왕건은 이 때 파진찬 겸 侍中으로서 百僚의 長이었고, 國事를 平章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건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중으로서 ‘國事를 平章’한 것이라고 하겠다.

27)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숙청된 부인 강씨는 信川의 호족인 ‘信川康氏’이며, 이들 신천 강씨는 왕건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즉 왕건의 증조부인 康忠이나, 고려초에 활약한 大相 康公萱, 元尹 康柔英, 왕건의 妃父인 康起珠 등이 신천 강씨라는 것이다(李樹健, 1984. 「高麗前期 지배세력과 土姓」 『韓國中世社會研究』, 171~172 ; 趙仁成,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07~110 ; 신호철, 1993b. 앞 글, 180~181 참조).

의 일이다. 즉 轅門將校 宗室勳賢 智計儒雅의 무리들이 왕건에게 바람같이 쏠린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음, 비록 崔凝의 도움으로 간신히 모면하기는 했지만 왕건 자신도 하마터면 숙청의 대상이 될 뻔하였다. 왕건의 숙청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인 강씨를 제거한 직후의 일로 보인다. 그것은 부인 강씨의 숙청 기록에 이어 왕건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고, 왕건에 대한 治罪 이유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반역을 모의한 것'이며, 그것을 소위 미륵관심법에 의해 알아냈기 때문이다. 최응의 당시 직책이 궁예의 掌奏였던 것으로 보아 궁예의 지근거리에서 있던 핵심 참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8)</sup> 그러한 측근 참모까지도 왕건을 돕고 있는 상황 아래서 그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궁예는 친왕건세력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였던 것이다.<sup>29)</sup>

淸州 출신의 軍人 尹全·愛堅 등 80여명이 궁예에 의해 처벌당한 사건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尹全, 愛堅 등 청주출신 軍人 80여명이 궁예에 의해 모두 칼을 썬 뒤 끌려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왕건이 즉위하고 난 직후에 같은 청주 출신인 韓粲 聰逸을 시켜 이들을 구출케 하였다는 것이다.

궁예는 왜 자신의 군사적 기반이 된 청주출신 군인 80여 명을 죽이려 했을까. 기록에 의하면 궁예가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들을 다 죽이려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왜 변란을 일으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역시 앞서 검토한 아지태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들이 궁예에 의해 처형당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궁예적인 인물들이었음은 분명하고, 또 왕건이 즉위한지 3일만에 이들을 구출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친왕건적인 인물들이었거나 적어도 왕건이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아지태사건 이후 친왕건파에 가담한 청주인들일 것이며, 앞서의 筮全, 辛方, 寬舒 등과도 정치적 입장이 같지 않았을까 한다.

궁예가 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아지태 사건 이후 친왕건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궁예정권 말년에 처형 대상이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왕건의 '6월정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아울러 이들은 청주의 在地勢力이었다고 생각되는데,<sup>30)</sup> 아지태 사건 이후 재지 청주인들의 분열상

28) 최응은 궁예정권 하에서 翰林郎, 掌奏, 知元鳳省事로 활약하였으며, 궁예가 그를 가르켜 "이른바 聖人을 얻는다 함은 바로 그를(최응)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궁예의 핵심측근으로 활약한 것이 분명하다. 최응은 고려 건국 후 태조대에 광평랑중, 내봉경, 광평시랑을 역임하였으며, 현종 18년에 태조의 配享功臣이 되었다(『고려사』92, 최응전 ; 全基雄, 1996. 『羅末麗初의 정치사회와 文人知識層』(혜안), 101~107).

29) 그 구체적인 예가 석충과 형미의 처형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호철, 1982. 앞 글, 48~53 참조.

30) 지금까지는 이들 군인 80여 명을 궁예에 의해 철원에 移都한 '淸州人戶 一千'중에 포함된

황을 짐작케 해준다.

청주세력의 분열은 고려 건국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918년 7월 淸州의 강력한 재지호족인 靑州領軍將軍 堅金이 그의 副將인 連翬·興鉉과 더불어 서울로 와서 귀부하면서 표면화되었다.<sup>31)</sup> 이는 고려 건국 직후의 청주세력들의 동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즉 청주세력은 크게 두 개의 세력집단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912년의 아지태 사건 이후 왕건이 줄곧 견지해 온 청주세력에 대한 분열정책이 그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왕건이 견금의 귀부 후에 재지 청주세력의 동태를 조사하러 보내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보낸 이유도 청주세력의 분열을 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왕건은 즉위 후에는 청주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그리하여 왕건은 918년 8월 ‘청주가 順逆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讒言이 자주 일어나 친히 행차하여 城을 쌓았다’고 한다. 왕건의 청주 순행은 즉위 후 이루어진 최초의 지방 巡撫였던 것이다. 왕건이 청주세력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짐작케 해준다.

그러나 청주 巡幸 한 달 후인 918년 9월에 徇軍吏 林春吉의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sup>32)</sup> 청주 출신인 임춘길이 같은 청주출신인 裴愨規와 季州人 康吉, 阿次, 昧谷人 景琮 등과 함께 모반하고자 한 사건이었다. 물론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伏誅되었지만 이들이 모반하여 청주로 도망하고자 한 이유는 왕건의 청주인에 대한 견제·억압정책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한달 후인 918년 10월에는 淸州帥 陳瑄·宣長 형제의 모반을 꾀하다가 伏誅된 사건이 일어났다. 진선을 ‘淸州帥’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청주의 재지세력이며 강력한 호족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반란을 일으킨 시점으로 보아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가진 친궁예세력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편 왕건의 즉위 직후에 일어난 반란 사건은 앞서 살핀 청주호족에 의한 것 이외에도 2건이 더 있었다. 즉위 4일만에 일어난 馬軍將軍 桓宣吉의 반란 사건과, 그 10일 후에 일어난 馬軍大將軍 伊昕巖의 모반사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가 있거니와, 이들 두건의 모반사건이 모두 왕건이 즉위하던 6월에 일어났다는 점과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검토한 청주 세력들

---

청주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필자는 이들이 청주에 있던 在地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왕건이 철원에 있던 淸州人 聰逸로 하여금 그의 고향에 내려가서 이들을 구하도록 시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31) 『고려사』 92, 王順式附 堅金傳.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호철, 1993a. 앞 글, 83~85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논리 전개에 필요한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32) 신호철, 위 글, 85~86.

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등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sup>33)</sup> 우선 환선길이나, 이혼암은 모두 청주와 인접한 陰竹縣(지금의 음성군)이나 忠州출신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직함이 모두 馬軍(大)將軍이었던 점을 보면 군사적 실력자였음이 분명하다. 또 이혼암의 부인은 桓氏이고, 그 부인이 모반에 깊숙히 관련된 것으로 보아 환선길과 이혼암의 모반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 두 반란 사건이 순군리 임춘길의 반란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려사』 반역열전에 오른 太祖代의 인물은 이들 세 명이 전부이고 더구나 임춘길은 환선길 列傳에 附傳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3건의 반란은 그 동기나 시기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반란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환선길의 반란은 그 동기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환선길은 왕건의 6월정변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의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혼암의 난 역시 환선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혼암은 궁예정권 말년에 翁주를 襲取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가 궁예가 몰락하자 철원으로 올라왔다. 그가 翁주에서 철원으로 올라온 이유는 왕건의 6월정변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翁주는 왕건의 정변 후에 후백제에 귀부하는 등,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다. 아마도 이혼암은 翁주 호족들의 이같은 동향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철원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철원에 온 후에도 守義刑臺라는 관직에 임명된 것을 보면 이혼암이 왕건과에 가담하여 정변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 환씨가 환선길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혼암 자신도 난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혼암의 난 역시 왕건의 즉위과정에서 논공행상을 둘러싸고 측근세력간에 있었던 권력분쟁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혼암의 모반사실을 사전에 밀고한 사람이 이혼암이 있던 義刑臺라는 관부의 장관이었던 점을 보면<sup>34)</sup> 이 난의 성격이 권력분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다.

이상 고려건국 전후에 나타난 청주 호족들의 동향과 이에 대한 왕건의 대응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912년에 일어난 淸州人 阿志泰 事件을 시발로 하여, 궁예정권 말기의 尹全, 愛堅 등 청주출신 軍人 80여명에 대한 처형사건, 918년 7월 淸州領軍將軍 堅金의 고려 귀부에 따른 재경세력과 재지세력과의 갈등 및 이와 관련하여 일어난 在地 청주호족의 반란사건, 918년 8월 왕건의 청주 巡幸과 淸州城의 수축, 918년 9월 청주출신 徇軍吏 林春吉의 반란사건, 918년 10월 淸州帥 陳瑄·宣長 형제의 모반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한편 비록 청주출신은 아니지만, 왕건 즉위 4일만에 일어난 馬軍將軍

33) 신호철, 위 글, 87~89.

34) 이혼암을 밀고한 인물은 閻農인데, 그는 왕건의 즉위 6일만에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義刑臺수에 임명되었다(『고려사』1, 태조 원년 6월 辛酉).

桓宣吉의 반란 사건과, 그 10일 후에 일어난 馬軍大將軍 伊昕巖의 모반사건 등도 청주와 인접한 중부출신(음성과 충주)의 반란으로 순군리 임춘길의 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결국 서울에 있던 청주세력들은 물론 재지 청주세력들도 서로 분열·대립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912년 이후 왕건의 청주호족세력에 대한 분열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입전, 신방, 관서 등(912년 아지태 사건)과, 윤전, 애견 등 군인 80여명(918년 6월 궁예의 청주군인 처형사건), 문식, 명길, 김근겸, 관준, 김언규(918년 7월 청주영군장군 견금의 귀부사건) 등과 같이 친왕건파에 가담한 인물이 있었는데, 반대로 淸州帥 陳瑄 형제와 같이 왕건의 즉위에 강하게 반발한 친궁예세력들도 있었다. 한편 처음에는 궁예세력이었으나 후에 친왕건파에 가담하여 왕건의 추대에 공이 있었으나 그후의 논공행상 과정에 불만을 품었거나, 권력분쟁과 관련하여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도 있었다. 순군리 임춘길이나 마군장군 환선길과 이혼암 등이 이같은 인물이었다.

## 2. 淸州豪族과 開國功臣의 대립

이처럼 청주세력은 재경세력이나 재지세력 모두가 궁예와 왕건 간의 정치적 대립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태조로 즉위한 직후 집중적으로 일어난 반란사건은 모두 청주인이거나 아니면 청주인과 관련을 맺고 있었거나, 적어도 청주와 인접한 중부지방 일대의 인물들이었다. 이점은 청주인들이 궁예정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특히 철원천도와 관련하여 궁예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으며, 왕건이 철원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천도 후에 본격적으로 궁예와 왕건 간의 대립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왕건과 청주세력간의 갈등은 이미 왕건 즉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청주세력 중에서 친궁예세력들은 왕건 즉위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런 것이고 그러한 불만이 고려건국 직후에 반란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건국 직후에 일어난 청주인의 반란이 모두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청주세력이라 하여 모두가 친궁예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청주인들 중에는 아지태 사건 후 왕건에게 가담한 자도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6월정변'에 직접 가담하여 왕건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주인들 중에 비록 왕건세력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왕건의 핵심 측근세력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왕건이 필요에 따라 청주인들을 포섭·회유하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주인들간의 분열과 견제를 통해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록 왕건세력에 가담한 청주인들 중에서는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제거되거나 논공행상에 있어서의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고려건국 전후 청주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청주인들을 견제하고 이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인물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주 세력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왕건의 친위세력들로서 궁예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개국 1·2등 공신이거나 이에 준하는 인물이었다.<sup>35)</sup>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건국직후 일어난 청주 호족들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진압하거나 청주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개국 1·2등 공신들과의 관계 및 그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국공신과 청주세력과의 대립관계

이름	功臣號	지 위	청주호족 관련사건	역 할
홍유	1등공신	마군장군	청주영군장군 견금 귀부후 청주반란사건	청주반란에 대비, 병사 1500명을 이끌고 출정. 鎭州에 주둔
유금필	太祖配享功臣 (太師開國忠節功)	마군장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능식	2등공신	마군장군	위와 같음	청주반란을 진압키 위해 출정. 도안군에 주둔.
염상	2등공신	마군대장군	순군리 임춘길 모반사건	임춘길 모반에 가담한 경종의 誅殺을 주장.
복지겸	1등공신	마군장군	임춘길 모반사건 환선길 모반사건	임춘길 모반 사전밀고, 주살함 환선길 모반 사전밀고, 주살함
배현경	1등공신	마군장군	청주인 현률의 순군량중 임명사건	청주인은 믿을 수 없다 하여, 현률의 순군량중 임명 반대.
신승겸	1등공신	마군장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염장	“創業之始 俱罄佐命之勳者”	義刑臺令	이혼암 모반사건	이혼암 모반 사전밀고, 棄弑됨

<표 1>에서 보듯이 청주세력의 분열·반란사건에서 이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1·2등 공신이거나, 이에 준하는 개국공신들이었다. 즉 홍유·복지겸·신승겸·배현경 등 1등 공신 모두와, 2등 공신인 능식과 염상, 그리고 비록 1·2등 공신은

35) 주지하다시피 고려의 개국공신 중 1등공신은 홍유, 복지겸, 신승겸, 배현경 4인이고, 2등 공신은 견권, 능식, 권신, 염상, 김락, 연주, 마란 7인이다.

아니지만 왕건 추대에 있어서 1·2등 공신 못지 않은 역할을 한 유금필과 염장이 바로 그들이다.

우선 고려 건국 직후인 918년 7월 靑州領軍將軍 堅金이 그의 副將인 連翥, 興鉉과 더불어 서울로 올라와 왕건에게 귀부한 후에 “한 州의 사람이라도 각기 마음이 다르리라 만약 화가 되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관군을 보내 성원하여 주십시오”라 하며 관군의 파병을 요청하자, 왕건은 마군장군 洪儒와 庾黔弼로 하여금 병사 천 오백을 거느리고 가서 鎭州에 머물면서 청주세력의 반란에 대비케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마군장군 洪유는 왕건을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다. 洪유와 함께 청주세력을 진압하러 간 마군장군 庾黔弼은 비록 1등 공신은 아니지만, 왕건의 최측근으로 왕건 추대에 있어 1등 공신 못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즉 그는 성종 13년에 태조의 配享功臣(太師開國忠節功)에 오른 5명 중의 하나로, 1등 공신인 4명을 제외하면 유금필이 유일하다.<sup>36)</sup> 그는 평산 유씨로 일찍부터 왕건 휘하에서 수많은 군사활동에 참가하였고,<sup>37)</sup> 그의 딸은 왕건의 妃인 東陽院夫人이다.

이때 청주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청주로 내려간 인물로는 앞의 洪유와 유금필과는 별도로 馬軍將軍 能植이 있다. 청주영군장군 견금의 원군 요청이 있는지 얼마 후에 도안군(지금의 괴산군 도안면)으로부터 청주세력의 반란소식을 보고 받은 왕건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능식을 보냈던 것이다. 能植은 2등 공신으로, 그는 청주로 내려가기 며칠 전인 918년 7월1 일에 廣評郎에서 衛軍郎中에 임명된 能寔과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sup>38)</sup> 즉 그는 왕건을 추대한 공으로 순군부의 고위직에 임명되었으며, 兵權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된 그는, 이때 순군부 병력을 이끌고 청주세력을 장악하러 간 것이다.

그런데 청주세력의 반란은 궁예가 제거되고 왕건이 추대된 데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왕건 즉위 후 지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란사건이며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왕건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 인물로 하여금 병력을 이끌고 내려가게 했던 것이다. 당시 청주 호족세력의 형세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 중앙 진압군들이 청주로 직접 진격하지 못하고, 앞서 내려온 洪유와 유금필 군은 鎭州(진천군-청주와 북쪽으로 접해 있다)에 주둔하였고, 뒤이어 순군부 병력을 이끌고 내려온 능식은 道安

36) 그후 현종 14년 4월 최응이 추가되어 태조의 배향공신은 모두 6명이 되었다(『고려사』60, 禮志2, 配享公신배향어정).

37) 예컨대, 918년 6월 견훤이 나주에서 고려에 귀부할 때, 군함 40여 척을 이끌고 나주에 가서 견훤을 맞이하는 등, 왕건은 그를 ‘시중 寵遇함이 諸將에 미칠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고려사』92, 유금필전).

38) 『고려사』1, 태조 원년 7월 壬申.

郡(괴산군 도안면-청주와 동쪽으로 접해 있다)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9)</sup> 결국 청주세력의 반란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청주세력의 동향은 그 인근에도 영향을 미쳐 한달 후인 8월에는 응주, 운주 등 중부일대의 10여 州縣이 후백제에 ‘叛附’하였던 것이다.

마군장군 卜智謙은 918년 9월 청주출신 순군리 임춘길의 모반 사건을 사전에 밀고하고 이를 진압하였다. 그는 또 환선길의 반란사건을 밀고하여 이들을 주살하기도 하였다. 그는 1등 공신이다.

순군리 임춘길의 반란에 가담했던 매곡인 경종의 처벌을 놓고 논의할 때, 淸州人 玄律은 그를 용서하여 회유할 것을 권유하여 왕건이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지만, 馬軍大將軍 廉湘은 誅殺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경종은 물론 난에 가담한 인물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다. 염상은 2등 공신이지만, 유일하게 ‘馬軍大將軍’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 1등 공신들조차도 ‘馬軍將軍’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건국 후 태조 11년~12년에 걸쳐 서북지역에 鎭이나 城을 건설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며,<sup>40)</sup> 태조 26년 5월에는 태조의 顧命幸臣이 되었다.<sup>41)</sup>

또 순군리 임춘길의 반란사건 이후에 왕건은 청주인 玄律을 徇軍郎中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이를 1등 공신인 배현경과 신승겸이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현물은 순군랑중 대신 병부랑중에 임명되었다. 여기에서 순군랑중과 병부랑중의 차이를 갑자기 설명할 겨를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겸과 배현경이 반대한 이유가 현물이 청주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청주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더구나 순군랑중은 兵權을 쥐고 있는 직책이라 이를 청주출신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는 점이다. ‘6월 정변’에 앞장섰던 1등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청주인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한편 이혼암의 난을 밀고한 인물은 廉蕘이었다. 그런데 염상은 비록 1·2등 공신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왕건을 추대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1등 공신 못지 않은 왕건의 측근인물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왕건은 즉위한지 6일만에 중앙의 중요 관부에 31명의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이때 중앙 관부의 장관인 義刑臺丞에 염상이 임명되었음을 보면 그의 위치를 쉽게 가늠해 낼 수가 있겠다. 이때 장관직에 임명된 인물은 모두 10명 뿐

39) 능식이 이때 道安郡에 주둔한 것을 근거로, 그를 청주(道安은 淸州牧 所屬)출신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으나(金炫廷, 1996. 『고려 개국공신의 정치적 성격』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출판부, 61~62), 이는 잘못이다. 능식이 도안에 주둔한 것은 청주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보다 먼저 청주를 진압하기 위해 내려온 홍유와 유금필이 鎭州에 주둔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鎭州출신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40) 염상이 축성한 곳은 安北府(11년2월), 安定鎭(12년 3월), 安水鎭(13년 8월), 通海鎭(17년) 등이다(『고려사절요』1, 태조 11년 2월, 12년 3월, 13년 8월, 17년).

41) 『고려사』1, 태조 26년 5월 丁酉.

으로, 장관 임명의 기준이 “창업의 시초부터 두루 종사하였으니 모두 佐命의 공훈을 다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sup>42)</sup> 염장 역시 왕건 추대에 지대한 공이 있었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건국 전후 주로 청주호족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거나, 재경 청주인들의 반란을 사전에 밀고하거나, 혹은 그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청주세력과 관련된 사건에는 거의 대부분 개국 1·2등 공신이 개입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주인들 중에 일찍 왕건파에 가담하여 그 추대 과정에 공이 있는 인물들조차도 이들 1·2등 공신에 의해 견제되거나 논공행상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현률이 순군낭중에 임명되지 못한 것이라든지, 순군리 임춘길, 마군장군 환선길, 이훈암 등은 왕건의 추대에 공이 있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1·2등 공신에 의해 제거되었던 것이다. 즉 개국 1·2등 공신과 청주세력은 철저하게 견제·대립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궁예정권에서 정치적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던 청주인들과 왕건을 도와 궁예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1·2등 공신들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청주인들 중에 비록 자신의 추대에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을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건이 전국의 유력 호족들과 정략적인 혼인을 했으면서도 청주호족의 딸을 비로 맞이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주 진압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였던 鎭州(진천군)의 호족인 鎭川 林氏와,<sup>43)</sup> 충주의 호족인 忠州 劉氏와는<sup>44)</sup> 통혼하였으면서도 청주의 호족과 혼인하지 않은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맺음말

궁예는 904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청주인호 일천’을 이주시켜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궁예가 청주인을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충분한 이해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필자는 이를 궁예가 일찍부터 청주와 밀접한 연고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궁예는 태어나면서부터 中央政爭에 의해 지방에서 숨어살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청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궁예는 그러나 10여세에 이르러 신분이 탄로나게

42) 『고려사』 1, 태조 원년 6월 辛酉.

43) 신호철, 1997. 「高麗 建國期の 鎭州豪族 -鎭州林氏의 역할을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 1.

44) 金壽泰, 1989.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 -忠州劉氏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1.

되자, 청주를 떠나 강원도 영월의 세달사로 가서 승려가 되었다. 그곳에서 궁예는 진성 여왕대에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지자 정치적 야심을 갖고 그의 출신기반인 청주 인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청주출신 호족인 죽주적 기훤에게 가서 그의 부하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역시 청주출신 호족인 신훤 등과 함께 결탁하였으며, 그 후 복원적 양길에게 귀부하였다. 양길에게 귀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양길이 충주, 원주 등 서북지방에 세력권을 가지고 있던 데 비해, 궁예는 청주를 비롯한 괴산, 죽주 등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후 궁예는 양길과 대립·경쟁하게 되었고, 894년에 드디어 명주로 가서 장군이라 칭하면서 양길과 결별, 독립세력이 되었다. 898년 왕건의 귀부를 받은 궁예는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으나, 곧 왕건을 비롯한 패서 호족들의 견제를 받자 이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다시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철원으로 서울을 옮기면서 자신의 출신지역인 청주의 호족들을 대거 이주시켜 자신의 군사적 세력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궁예의 철원 천도에 불만을 가진 인물은 왕건이었다. 자연히 철원천도 과정에서 궁예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한 청주세력과 왕건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건은 청주세력을 분열·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지태 사건은 왕건이 청주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왕건의 청주세력에 대한 분열·견제·억압정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청주세력들간에는 점차 재경세력이든 재지세력이든 서로 분열·대립하게 되었다. 즉 청주인들 중에는 궁예정권의 핵심층근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왕건파에 가담하는 인물들도 생겨났다.

918년 6월 드디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 태조로 즉위하게 되자, 청주인들은 대부분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청주의 재지 호족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건파에 가담한 세력들은 이러한 반란의 기미를 알고 왕건에게로 가서 원군을 청하였고, 왕건은 측근세력을 파견, 청주세력을 제압하였다. 홍유, 유금필, 염상이 그들이다.

반면 재경 청주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궁예정권의 몰락에 불만을 가진 친궁예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반면 왕건파에 가담하여 건국과정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공행상 과정에 불만을 가진 친왕건적인 세력도 있었다. 청주세력이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가진 까닭은 왕건의 청주세력에 대한 정책에 기인하였다. 즉 왕건은 본래부터 청주세력의 분열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건을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개국 1·2등 공신들 역시 청주세력을 견제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려건국 전후 청주세력과 개국 1·2등 공신들은 서로 대립·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건국 전후 청주세력의 분열이나 모반사건에 반드시 개국공신들이 개입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건국 후 최초로 일어난 청주 호족의 모반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홍유·유검필·능식은 각각 1등 공신, 태조 배향공신, 2등 공신이었다. 또 순군리 임춘길의 모반과 환선길의 모반을 사전에 밀고, 이들을 주살시킨 복지겸은 1등 공신이고, 청주인 현률의 순군량중 임명에 반대했던 배현경과 신승겸도 1등 공신이다. 임춘길의 모반에 가담한 경종의 처벌을 놓고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염상은 2등 공신이다. 결과적으로 염상의 주장에 따라 경종을 비롯한 반란 가담자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이혼암의 모반을 밀고하여 처형한 염상은 비록 1·2등 공신은 아니지만, 왕건 추대의 공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건국 직후에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중앙 관부의 장관인 의형대령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처럼 청주세력과 개국 1·2등 공신세력과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세력 중에 비록 건국 과정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역시 불만을 품고 모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모반의 누명을 쓰고 제거되기 일췌였다. 결국 청주의 호족세력이 중앙정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태조 이후에 가서야 가능했던 것이다.